



부안 동진면 지사협, 동진에(愛)반찬 사업 본격 추진

부안군 동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최정에·민간위원장 전종각)는 관내 식사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인 2026년 동진에(愛)반찬 사업을 3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총 12가구를 선정,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체 위원과 대상 가구가 1대1로 결연을 맺고, 매주 수요일마다 직접 가정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3종류의 밑반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종각 민간위원장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정기 기부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올해는 더 많은 이웃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변산면 지사협,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 추진

부안군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월부터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질병과 노령 등으로 인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양 결핍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돕기 위해 영양가 있는 밑반찬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약 10개월간 추진되며 주 1회씩 총 40회에 걸쳐 1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전달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보안면 지사협, 건강을 배달하는 희망찬(饑) 지원

부안군 보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한석, 공공위원장 이철기)는 지난 4일부터 건강을 배달하는 희망찬(饑) 지원사업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위탁된 성금으로 운영하는 특화사업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장애인 25세대를 선정해 밑반찬을 주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한석 민간위원장은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에게 영양결핍과 생활불편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기 공공위원장은 "기부금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복지 지원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로컬푸드직매장 납품 지역농산물로 조리된 반찬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우리 동네에 신나는 농악단이 왔어요!'

정읍시립농악단, 생활 속으로 스며든 '찾아가는 동네방네 연희 한마당' 펼쳐

복지센터 강당 한쪽에서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어르신들의 얼굴에 금세 웃음꽃이 번졌다. 상모가 힘차게 돌고, 사자춤이 객석 사이를 누비자, 박수와 환호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정읍시립농악단(단무장 김정곤)이 추진 중인 '찾아가는 동네방네 연희한마당'이 시민들의 일상 공간을 무대로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복지회관, 자치센터, 단체강당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정읍 농악을 비롯해 부포놀이, 설장구, 버나놀이, 죽방울, 사자춤, 열두발삼모 등 다채로운 전통연희가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이미 1월 21일 정읍노인복지요양원을 시작으로 3월 3일 신대인 정월대보름 민속극단까지 총 8개 단체, 780여 명의 시민이 공연을 관람했다. 특히 3월 3일 신대인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에서는 2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마을 잔치 분위기 속에서 농악의 신명을 함께 즐겼으며 3월 말까지 북면·수성동·송산동 일대 재가노인복지센터,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등 9개 기관·단체 공연이 예정돼 있다. 김정곤 단무장은 "찾아가는 동네방네 공연은 단순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도 정음문화가 살아 있음을 체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예술이 시민의 일상에서 숨 쉬도록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

남원소방서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등 외근 소방공무원 18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날로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전문적인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활동을 위한 팀 단위의 유기적인 전술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 실기평가(80%)와 이론평가(20%)를 합산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실기평가는 철저히 '팀 단위 전술'에 중점을 두고 각 직무별로 △화재진압분야는 '4인조법' △구조분야는 '수직구조' △구급분야는 '전문심장소생술'을 평가 종목으로 채택하여, 실제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역량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남철희 서장은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과 평가를 통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예 소방력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주민공동체 중심 본격 추진

소검산·성당·상록마을 주민 참여 통한 운영

김제시는 2025년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주민협의체 3차 회의'가 지난 4일 성당마을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주민 참여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난 1월 18명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을 승인한 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장소는 3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형평성과 균형감 있는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또 이번 회의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추진할 사업인 붕괴위험 담장 정비 및 공?폐가 철거, 노후주택 개선 등에 주민협의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에도 적극 힘쓰기로 다짐했다.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노후주택 정비 지원,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주민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마을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조용완 도시과장은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김제시는 2025년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주민협의체 3차 회의'가 지난 4일 성당마을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주민 참여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난 1월 18명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을 승인한 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장소는 3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형평성과 균형감 있는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또 이번 회의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추진할 사업인 붕괴위험 담장 정비 및 공?폐가 철거, 노후주택 개선 등에 주민협의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에도 적극 힘쓰기로 다짐했다.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노후주택 정비 지원,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주민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마을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조용완 도시과장은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고창소방서, 현장대원 대상 소방전술훈련 실시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현장대원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현장대원의 전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현장대원 상시 교육훈련체계 정착에 따른 훈련 완성도와 숙지도,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진압·구조·구급대원 등 직무별 역할을 고려한 전문 종목을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상대 순회 직무교육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새학기를 맞아 2026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56명을 대상으로 순회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새 학기 아동 안전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관내 학교 주변과 통학로, 공원, 놀이터 등 아동범죄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동안전지킴이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와 범죄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내 9개 지구대·파출소를 권역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아동대상 범죄 유형 및 최근 사례공유 △위기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요령 △112신고 체계 이해 △아동·학부모 응대 요령 △근무 중 유의사항 및 복무규정 안내 등이 다뤄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전주지사, 증양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and their respective phone numbers.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Earth's warmest place' featuring a polar bear and text: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